

영암군, 3년 만에 청소년의 달 기념식 개최

모범 청소년 표창 및 자치기구 발대식

영암군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모범이 되는 청소년 16명과 청소년 육성 보호 유공자 1명에 대해 격려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청소년 자치기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2년 동안 청소년 기념행사가 취소돼 행사를 진행하지 못했고, 3년 만에 대면으로 표창장 수여와 발대식을 진행한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청소년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식 식전 행사로 청소년수련관 문화교육발레 수강생들의 멋진 발레공연과 관내 청소년의 헌란한 피아노 연주로 열기가 뜨거웠으며, 기념식에는 청소년 헌장 낭독을 시작으로 청소년 육성 보호 유공자의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을 비롯해 17명의 모범 청소년들이 표창받았다.

모범 청소년상을 수상한 한 학생

은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는 5월에 이렇게 뜻깊은 상을 받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 청소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소년자치기구 발대식은 천민성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근로보호 활동단, 청소년 동아리 연합회 대표가 차례대로 위촉장과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발대식을 시작으로 청소년 자치기구는 청소년 관련 정책 제안 및 발굴, 청소년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근로 청소년들의 권익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어울림마당 행사 기획 및 운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게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수련관(061-470-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규진 기자



영암군이 건강하고 바른 성장으로 모범이 되는 청소년 16명과 청소년 육성 보호 유공자 1명에 대해 격려의 표창장을 수여하고 청소년 자치기구 발대식을 개최했다. /영암군 제공

강진군, 가축 재해보험 지원

강진군은 매년 늘어나는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비용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지원한다.

올해 군은 자체예산을 추가 확보해 1억 9천800만 원 사업비를 투입해 재해보험 가입 농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꿀벌 등 총 16종에 대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이 돼있고, 해당 축종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다. 축산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축협에 방문해 자부담금 20%를 납부 후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당 지방비로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농가 자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1분기 기준으로 관내 88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9천700만원의 혜택을 받았다. 사업 진전에 대해서는 지방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전문계 기자

목포의 밤 장식할 목포해상W쇼 첫 선

신규 뮤지컬 제작...메인쇼 이후 버스킹 공연

목포의 밤을 화려하게 장식할 '2022 목포해상W쇼'(이하 W쇼)가 3일 첫 선을 보인다.

올해 W쇼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랠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공연을 6-8월은 매주 금-토요일 저녁 8시30분에, 9-11월에는 저녁 8시에 각각 평화광장 춤추는 바다분수 해상무대에서 펼친다.

춤추는바다분수와 뮤지컬, 불꽃쇼의 콜라보 공연인 메인쇼는 K팝과 퓨전국악 등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2개 신규 뮤지컬 공연과 기존 작품을 순차 공연해 다양성과 완성도가 높아졌다.

메인쇼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이벤트는 레크리에이션, 프리포즈, 사연소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펼쳐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는 축제의 시간으로 진행된다.

메인쇼 이후에는 '2022 목포항구 버스킹'과 연계해 W쇼 공연 후의 아쉬움을 달랠 감성 충만한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시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연관람을 위해 등 유관기관과 모범운전자회, 시민경찰 등 사회단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안전 및 교통관리요원 배치 등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W쇼의 자세한 내용은 목포해상W쇼 홈페이지,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올해 W쇼는 지난해 공연을 보완해 더욱 특색있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마련했다. W쇼가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관광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면서 “공연 당일 교통체증이 예상되니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무안군, 체납 차량 번호판 야간 집중 영치

무안군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군은 매달 3일간의 기간을 정해 아파트 단지와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2시까지 자동차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차량 382대를 대상으로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차량 132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약 6천 300만원을 징수했다.

신안군, 도초도서 '섬 수국축제' 올해 개최

신안군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섬 수국축제'를 올해 다시 시작한다고 밝히며 준비에 한창이다.

'팽나무 10리길에서 수국을 만나'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10일간 신안군 도초도서에서 개최된다. 축제기간 동안 수국공원 뿐만 아

니라 환상의 정원(팽나무10리길)에서 토양의 성분에 따라 빛깔이 다르게 피어난 형형색색의 탐스러운 1004만 송이 수국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지난 2020년 전남도 도시숲 평가 대상, 2021년 산림청 가로수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팽나무 10리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명품 팽나무

영치된 차량 중 54대는 타 지자체 체납 차량으로 지방세징수법 징수촉탁 규정에 따라 2천900여만 원을 징수했고, 군은 징수액의 30%인 870여만 원을 징수 촉탁 수수료로 받아 세입을 늘렸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 5천 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윤규진 기자

716주가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맑은 바람과 함께 숲길을 걸으며 꽃 에너지를 얻어갈 수 있는 최상의 힐링 산책길이다.

또한, 흑산도로 유배당한 정약전 이 섬 청년 창대를 만나 신분과 나이를 초월한 벗의 우정을 나누는 영화 '자산어보' 촬영장이 수국공원 인근에 있어 방문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박성태 기자

함평군, 가축분뇨 사업 박차

함평군이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사업비 89억여(국비·용자 62억3천만원 포함) 원을 투입, 월야면 계림리 일원에 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공동자원화시설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전력 생산은 물론 발효된 소화액은 퇴·액비로도 자원화 할 수 있어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로 건립되는 공동자원화시설은 흙사랑영농조합법인을 통해 운영된다.

군은 현재 설계 및 시공사 공법 공모를 진행 중으로 업체 선정 후 각종 인허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서용운 기자

담양의 품격

대숲맑은 담양은 공동브랜드

대숲맑은 담양 청정 자연이 주는 건강한 첫 느낌을 손에서 손으로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하고 성실한 농부의 손길로, 정직한 농부의 마음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합니다.

담양군·농협경제제주담양군연합사업단